

[기획]

■ 광주·전남 문화관광산업 육성 어떻게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급하다

광주 문화중심도시와 전남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광주·전남이 우리나라 문화관광산업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문화관광부가 분류한 전국 4만5천952개의 문화관광자원 중 15.2%에 해당하는 6천981개가 분포돼 있는 등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유인도 280개, 무인도 1천689개 등 1천969개(국내 총 도서 수의 62.1%)의 섬이 서남해에 산재돼 있는데다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다양한 해상관광자원이 널려 있어 해양휴양 관광명소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참여·체험형 관광상품이 부족하고 대표적인 거점 관광지인 숙박시설, 국제공항 등 관광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취약해 문화관광산업이 지역의 성장을 위한 핵심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관광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행업 6.4%, 관광호텔업 8.3%, 관광 편의시설업 5.2% 수준에 불과하고 관광산업 종사자 비중 역시 여행업 4.2%, 관광호텔업 2.7% 등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활성화 정책과 함께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인프라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단기간 육성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 당장 활용가능한 자연자원으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해 관광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도 전문인력 양성의 시급함을 더해주

올해 필요인력 6천여명 부족

성장경인 거점산업 역할못해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 필요

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와 광주·전남 주요 대학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문화관광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문화관광상품에 대한 수요증가, 시장 확대, 해외진출 등으로 2006년 1만9천20명(문화관광산업 1만3천939명, 문화상품디자인 2천220명, 문화기술 2천861명)에서 2007년 2만349명(1만4천761명, 2천464명, 3천124명), 2008년 2만1천728명(1만5천631명, 2천735명, 3천36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공급 가능한 인력은 2006년 1만614명(문화관광산업 7천614명, 문화상품디자인 1천700명, 문화기술 1천300명), 2007년 1만1천442명(8천357명, 1천785명, 1천300명), 2008년 1만1천203명(8천33명,

1천870명, 1천300명) 등 양적으로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문화관광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양성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며, 급변하는 사회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해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전남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 조성과 관련, 전문성 있는 관광인력의 원활한 공급은 필수적인 요소지만 현재 업종별 인력공급에 관한 내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광인력 정책의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관광산업 인력 양성과 함께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질적 향상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관광산업은 그 특성상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예술(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가 관련되는 만큼 각 분야가 상호보완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학·관·민이 협력해 부가가치 높은 전문인력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외나로도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문화관광 인력 양성 문제점과 과제

동신대 도시·관광계획학과 조진상 교수, 관광학과 김선희 교수, 관광경영학과 임은미 교수는 최근 동신대에서 열린 '전라남도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워크숍'에서 지역 문화관광 전문인력양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산·학·관·민 협력체제 구축 = 지역 내 대형 관광업체가 없어 실무지향형, 현장적응형 교육여건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고 인재 배출 후에도 관광 관련 분야 취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역 내 중소기업의 관광관련 업체를 효과적으로 네트워킹해 실무 적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태·언어 관련 학과를 토대로 연계전공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 = 지역 측에는 적은 예산으로 지역을 알리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제에 충실하지 못한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축제나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해 내실있게 열리지 못하고 과거를 답습하는 문제점이 있어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 해설사' 등 체계적 양성해야

실무능력 키울 맞춤형 교육 절실

또 인턴십, 팀 프로젝트 탐사, 산업체 및 지자체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강화해 산·학·관·민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해설사 및 문화기획 인력 확충 = 문화유산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숲 해설사, 공원해설사, 갯벌생태해설사, 전시관 및 박물관 해설사 등 해설사의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전시관·박물관·테마파크 확충 등으로 해설사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해설사가 2~3개월의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 관광객이 만족할 정도의 해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양성 필요하다.

전시관·박물관·기념관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인력이나 큐레이터, 문화기획가 역시 크게 부족한 만큼 2년 과정의 대학원을 개설하거나 기존 대학의 문화·생

◇해양 및 수상 레포츠 지도사 양성 = 전남은 다도해, 리아스식 해안, 갯벌 등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관광의 영역 역시 전통적인 관광이나 낚시 등에서 벗어나 해양레포츠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비한 해양레포츠 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 도시 맞춤형 인력 육성 = 영암·해남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카지노, 골프장, 자동차 경주대회 등을 위주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시급하다.

◇농어촌관광 전문인력 양성 = 각종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마땅한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농촌집단 컨설팅, 1촌1전문가 지원, 도농교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황태종기자 hwangtae@

“글로벌 전문가 우리가 키운다”

동신대 '양성사업단' 등 광주·전남 대학들 발벗고 나서

동신대 등 광주·전남지역 일부 대학이 문화관광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동신대는 조선대, 목포대와 함께 문화관광 인력양성사업단을 운영중이며, 목포대도 도시·해양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대와 순천대도 광주·전남권역 자격증 클러스터 관광전문인력양성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동신대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인 문화관광인력양성사업단은 융합형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3개대 19개 학부·학과 3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오는 2009년 6월까지 4년간 250여명이 투자되며, 남도 문화관광 상품

개발, 남도 문화관광 세계화, 문화관광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등 3개 팀으로 나뉜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남도 문화관광 상품개발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은 문화관광 콘텐츠의 원형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인력, 벤처창업 수준의 문화관광 상품 기획 및 개발 전문인력, 지역축제·이벤트 개발 및 기획 전문인력, 국제적 감각의 문화 상품 기획할 수 있는 신세대 디자이너 양성이 목

표다.

남도 문화관광 세계화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은 문화와 관광분야의 소양을 갖춘 외국어 전문 통역 및 번역 인력, 문화관광 통역 안내사, 남도문화관광 홍보 전문가 양성을 꾀하고 있다.

문화관광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은 장소마케팅 기획 및 인력, 문화관광산업 비즈니스 창업인력, 국제적 감각을 갖

춘 관광서비스 인력, 스포츠관광사업 전문인력, 문화관광 디지털콘텐츠 제작인력, 유비쿼터스 환경구축 및 운영인력, 현실감 있는 가상체험 프로그램 개발인력을 키우고 있다.

목포대의 도시·해양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사업단은 전국 최장의 해안선과 62.1%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지역의 풍부한 도서해양관련 자연생태, 역사문화, 생활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해 산업화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광주대와 순천대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전남권역 자격증 클러스터 관광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직능식 현장실무와 접목한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생활안내

Table with 2 columns: Institution Name and Contact Info. Includes entries f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eonnam National University, etc.

Advertisement for '당선확신!!' (Certain Victory!!) for the 2008 National Assembly by-elections, featuring a candidat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Advertisement for '최첨단 시설이 겸비된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드립니다' (We rent advanced facilities at low prices), featuring an office building and contact info for '연우개발 빌딩 관리사무소'.

Advertisement for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Continuing the tradition of Damyang Han-gwa), featuring various dried fruit products and contact info for '담양한과'.

Advertisement for '삼보전기온플랜빌' (Sambo Electric Plan Building) and '삼우상사' (Samu Sangsa), featuring a building and contact info for '삼우상사'.